

# 농업의 세계화와 그 대안적 노력\*

## -한국의 경우-

한 경 호(목사, 21세기 농촌선교회)

### 1. 한국의 농업 현황

#### 1) 농가호수와 농가 인구

①농가호수: 140만 호,

②농가인구: 440만명(1998년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9.5%)  
이중 50세 이상이 47.4%, 50세 미만이 52.6% 이다.

#### 2) 농경지 면적

①논: 1,152,600ha, 밭: 746,300ha 합계 1,898,900ha 이  
다(99년도 현재).

②그러나 WTO 체제 출범이후 해마다 289,000ha씩 줄어들  
고 있다.

③임차농지는 789,000ha로 전체 농지의 41.3%를 차지하며  
이중 비농가 소유지가 555,000 ha로 임차농지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

\* 이 글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지난 2000년 6월 28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세계화의 대안들 : 세계 여러지역의 경험과 창의적 노력들’ (Alternatives to Globalization: Experiences and Initiatives from various Regions of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패넬토의에서 발제한 것이다.

### 3) 농가경제

① 1960년대에 시작한 산업화 이후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해 농업부문은 값싼 노동력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희생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②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농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대하여 농촌의 빈곤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농촌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UR 농산물 협상이 한국 농업에 끼친 영향

### 1) 무역수지

1994년 이후 1997년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은 9.5%의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29%에 달해 수입 구조의 불안정성과 함께 무역수지 적자를 증가시켰다. 1992년도의 수입액이 71억 달러였는데 수입이 최고에 달했던 1996년도에는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8년도에는 IMF 사태로 인해 70억 달러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1999년도 말 현재 77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수입 자유화율은 1997년도에 이미 98.6%에 했고 2001년도에는 99%가 될 전망이다.

### 2) 농사의 파탄

수입농산물의 범람속에 농사지를 작목 선택의 폭이 축소되어 일부 품목으로 집중화됨으로써 과잉 생산과 흉수 출하를 계속하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밀, 면화, 콩 등)은 생산기반이 붕괴된 형편이다.

### 3) 식량 자급율의 저하

현재 식량자급율은 30%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26.4%까지 하락하여 농산물 적자액이 90억 달러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 4) 농가부채의 증가

1992년도에 가구 당 평균 5,683,000원이었던 것이 1998년도에는 17,011,0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농가 부채 총액은 28조원(약 270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농가 호당 평균 약 20,000달러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 5) 농가인구의 감소

1992년도에 5,707,000명에서 1998년도에는 4,400,000명으로 감소하였다.

#### 6) 농산물의 안전성 하락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의 농법은 증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식품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려운 농가 경제를 이끌어가기려면 농민은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생산력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 7) 생명의 파괴 현상 증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의 농법은 모든 생명을 결국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 농약을 뿌리는 농민의 건강을 해치고, 땅을 죽이고, 작물을 오염시키며,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화학농약으로 죽는 사람이 년 평균 약 1,200명 정도이다( 자살자 까지 포함해서).

#### 8) 농업의 환경오염도 증가

농업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를 크게 늘리거나 시설 투자를 많이 하여 자본 집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므로(기업농업) 자연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환경오염형 농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 3. WTO에 의한 '농업의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

#### 1) 세계 부(富)의 독점 및 편재 현상의 심화

WTO는 전 회원국들에게 부의 증진, 번영, 복지개선을 가져다 준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과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무역을 통해 그들의 부를 한층 축적시켜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세계속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빌려쓴 융자금을 갚지 못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거나 파산하는 사례들이 있다.

#### 2) 종자의 독점

전 세계 10대 종자기업이 종자를 독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자칫하면 세계의 농민들이 종자를 다국적 종자기업으로부터 매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전 세계 5대 생명공학 독점자본(Astra Zeneca, 듀폰, 몬산토, 노바티스, Aventis)이 전 세계 농약 시장의 60%, 전 세계 종자 시장의 23%, 전 세계 GM종자 시장의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다국적 농업 자본이 종자를 독점하여 전 세계 농업과 농민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각 나라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재래의 종자들은 점차 사라지고 종자회사로부터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다국적 농업자본의 독점화가 심화되어 식량안보와 환경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3) 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에 의한 건강 위해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

현재 개발된 GM 농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담배, 토마토, 감자가 대표적이며 그 중에서도 특정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제초제 저항성 GM 농작물이 가장 많다. 이로 인해 생태계를 교란, 파괴시키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인체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다국적 농업자본은 GM 농작물을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고, 마구 섞어서 수출 판매해 왔다. 이는 소비자들이 GM 농작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다.

#### 4) 정의롭지 못한 세계화

부(富)의 독점과 편재,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다국적 농업 자본의 이익 관철로 인한 농민들의 자본에의 예속화는 결국 수많은 다수 농민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평화(平和)'란 말의 뜻은 밥이 골고루 입에 들어가는 경제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계화는 성서적으로 봐서 정의롭지 못하다.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 4.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적인 노력들

#### 1) 생명공동체운동의 전개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여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하였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이 이 운동에 적극적이데 개신교의 경우 농촌교회의 목회자와 농민들이 힘을 모아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40여 교회가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농법을 탈피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농법(유기농법, 자연농법 등)으로 전환하고 그 생산물은 도시교회의 소비자 교인들이 직거래를 통해 구매해주는 것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물질교환의 걸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함께 나누

다는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현재 전라남도 장성의 백운교회(한 마음공동체)가 대표적이다.

## 2)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한국의 생협중앙회는 1983년도에 창립되었고 1998년도 말 현재 72개의 단위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72개 조합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41개의 조합이 분포하고 있다. 1998년도에 생협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 3) 귀농운동의 전개

한국에는 1996년도에 30여 개의 단체가 연합하여 귀농운동 본부를 발족시켰다. 날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살려 우리 농업을 지키고, 생태적 마인드를 갖춘 일꾼을 발굴, 훈련시켜 농촌공동체를 새롭게 일구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귀농 캠페인을 벌이고 희망자를 교육, 조직화하여 농촌으로 귀농시키고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현재의 산업문명에 대해 회의론을 품고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농업에서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 4) 지역농업의 활성화

지금까지 농업은 중앙단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훈련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지역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사기술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자원(생물적, 비생물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토착미생물의 활용 등) 지역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물질적, 정신적 교류관계를 맺음으로써 농업을 토대로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가려고 한다. 현재 강원도 원주의 '원주생활협동조합'이 이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생산자 중심

으로 출범하여 기초가 마련된 이 조합은 이제 지역의 농과대학과 이론-현장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도시의 소비자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생산자-소비자 연대의 새로운 활동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 5) '투자협정, 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의 결성

한국의 18개 시민단체는 '투자협정, 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1999년도 9월에는 '민중행동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999년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WTO각료회의를 반대하는 시위에 세계의 NGO 들과 함께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5. 정책적인 노력들

정부의 농업정책속에서 현재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문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 추구해온 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의 증산 위주 농업정책과 모순되는 이 정책은 아직 기존의 농업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형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케 하는 농업 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6. 올바른 농업의 세계화는?

현재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농업의 세계화는 위에 언급한대로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WTO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의 세계화는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각 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 자기 조건에 적합한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작물의 품종, 농기구, 종자, 기후 조건, 농사 방법 등에서 다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는 자기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생산해야 한다(식품의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식품의 안전성).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그런 농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나라는 자기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농사를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건강한 농법과 무역 정책을 통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각 나라가 추구하는 생명공동체운동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 참된 의미의 세계화는 지역에 있는 각 나라들이 식량을 자급하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그 결과 세계가 자급하고, 세계의 환경이 보전되며, 무한경쟁의 세계화가 아닌 공생과 평화가 정착되는 세계화이다.

WTO체제에 의한 세계화는 제3세계의 농민들에게 결코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화는 빈곤과 질병과 생태계의 파괴를 더욱 야기시킬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맞서야 한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왜곡된 세계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인간과 여타의 모든 생명체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구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된 세계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연대하자! (Let's join) 힘을 기르자! (Empower) 방향을 틀자! (Recourse)